

‘금리 상승’ 자금조달 부담… 2금융권, 하반기 업황 ‘빨간불’

신평사, 2금융권 전망 ‘부정적’
은행·보험 등 업황 ‘중립적’ 진단
만기 여전채, 고금리 차환 가능성
취약차주 중심 연체율 상승 우려

기준금리 인상으로 제2금융에 먹구름이 몰려 오고 있다. 금리 상승이 자금 조달비용 부담 확대에 이어져서다. 여기에 다중채무자,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까지 더해질 경우 수익성·건전성이 모두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카드·캐피탈·저축은행 업계의 하반기 전망 지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은행·보험·증권사업황을 ‘중립적’으로 진단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통적으로 2금융권의 자금 조달 비용 확대가 악재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올렸다.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신현승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기준금리 상승은 2금융권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대표 요인이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국고채, 금융채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채(여전채)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는다.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에 의존하는 카드사, 캐피탈사의 경

우 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만기가 다가오는 여전채 금리를 더 높은 이자로 차환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금리 인상 기조와 최근 단기 물 발행 추세가 맞물리면 차환 위험은 더

증가할 수 있다.

김석우나이스신용평가수석연구원은 “금리가 상승할 경우 신규 조달 금리가 만기 때 예정 카드채 금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금리로 발행된 채권 영향으로 지난 1분기까지 하락세를 지속한 이자비용률은 다시 상승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도 단기적인 조달 원가 상승이 예상된다. 동시에 대출 금리로의 비용 전가가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구조를 감안하면 순이자마진(NIM)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 NIM은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차이를 이자수익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NIM이 축소되면 수익성 기반이 약해진다. 자금 조달 비용에 더해 연체율 상승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저신용 차주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의 경우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 저하 위험이 1금융권 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카드론이 43조원을 넘어서면서 금리 상승이 가계 이자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수석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을 비롯해 시중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건전성 저하 압력 역시 가중될 것”이라며 “신용카드사들의 자산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저축은행도 수신 경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늘려온 만큼, 금리 상승 기조가 더 해지면 대출 금리 인상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는 저축은행 차주의 신용위험 확대,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김연수 수석연구원은 “누적된 고금리 부담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중첩되면 자산건전성의 하방 압력이 심화될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주요 차주는 다중채무자, 저신용 가계 및 개인사업자 등 한계 차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리 상승이 이어질수록 실질 차분가능소득 감소와 함께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금리인상 지역별 온도차 ‘통화정책 과제’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흐름 달라
서울 매매 1.21% 오를때 지방 0.01%
“통화정책, 집값만 목표 운용 안돼”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려 수도권 주택시장에도 제동을 걸었지만 전국에 하나뿐인 기준금리가 지역별로 같은 효과를 내진 않는다는 분석이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흐름뿐 아니라 금리 충격에 대한 민감도도 다르게 나타나면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역할 분담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이번 인상은 집값만을 겨냥한 결정은 아니다. 한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강화되고 물가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도는 가운데 금융안정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안정 부문에서는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 월 8조~9조원에 달하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직접 지목했다.

◆ 수도권 집값만 더 민감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 직전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뚜렷하게 갈렸다. 한

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이 1.21%, 수도권이 0.81% 오른 반면 지방은 0.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전국 상승률은 0.40%였다.

최신 주간 통계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동안 0.30%, 수도권은 0.21% 올랐지만 지방 상승률은 0.01%에 머물렀다. 제주와 경북, 충남, 대구 등은 하락했고 전국 182개 시·군·구 가운데 64곳의 집값이 내렸다. 해당 통계는 금리 인상 전에 집계된 만큼 이번 결정의 효과가 아니라 금통위가 마주한 주택시장 상황을 보여준다.

같은 금리 인상이라도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통화정책이 지역별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0.25%p 기준금리 인상에 상응하는 통화정책 충격이 발생했을 때 수도권 주택가격은 1년 후 약 0.6% 낮아지는 반응을 보였다. 5대 광역시는 약 0.4% 하락했지만 기타 도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별 집값과 대출 규모 차이가 금리 민감도를 갈랐다. 지난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5억 4000만원으로 기타 도 지역 평균인 2억 4000만원의 6

배를 웃돌았다. 차주당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수도권이 약 2억 4000만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15~60% 많았다. 집값과 레버리지가 높은 지역일수록 금리 상승이 주택 수요와 가격에 더 강하게 전달된다는 분석이다.

◆ 신현승 “통화정책으로 집값 잡는 것은 무리”

따라서 지역과 주택가격,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수요를 겨냥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 기준금리는 물가와 총수요, 경제 전반의 신용팽창을 조절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위험에 보다 정밀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신현승 한은 총재도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집값만을 목표로 운용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며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추가 인상 과정에서도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뿐 아니라 정부 대출규제의 효과가 함께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이 될 전망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상도15구역 재개발 ‘상도 씨앗’ 투시도.

/대우건설

대우건설, 1.4조 상도 15구역 재개발 수주

최대 35층 30개동 3207세대 규모

대우건설이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20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공사비만 1조 436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 지하 8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0개동, 320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동작 최대 규모의 통합 재개발 대단지인 상도15구역을 위해 월드클래스 설계사인 SMDP와 손을 잡고, ‘상도 씨앗’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지역의 상징인 국사봉 대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독보적인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강과 도심, 국사봉 조망은

물론 단지 내부 조망도 가능한 와이드 조망형 창호를 적용해 차별화된 뷰를 선사할 예정이다.

조경 특화 설계로 사업지 단지를 최소화해 약 4600여평 규모의 초대형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평지와 같은 보행 환경을 구현해 쾌적한 일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형적 한계를 극복한 덮개공원과 총 8km에 달하는 순환 산책로를 조성하며 단지 전역을 하나로 잇는 워커블(Walkable)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며 사업비를 책임 조달한다. 원활한 이주를 위해 LTV 100%를 제안했으며, 분담금 입주시 100% 납부, 씨앗 프리미엄을 통한 일반 분양수의 극대화 전략 등을 제안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한 햇살론유스’ 보증료 10만원 지원

신한은행, 청년 금융애로 해소 일환

신한은행은 청년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한 햇살론유스’ 보증료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한햇살론유스’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대학생과 청년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민금융 상품이다.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 사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을 지원해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청년사업자 등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5일부터 ‘신한 햇살론유스’ 대출을 신규 실행하고 보증료와 이자를 정산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별도의 응모 절차 없이 대출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참

여되며, 준비된 지원 한도가 소진될 경우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보증료 지원금은 대출 신규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말에 지급된다. 예를 들어 7월부터 9월까지 대출을 신규한 고객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12월 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학업과 취업 준비, 사업 초기 단계에서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청년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나은행, 수입기업 성장지원 나서

한국수입협회·기보와 업무협약

하나은행은 한국수입협회, 기술보증기금과 국내 수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금리와 고환율,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입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해 수입기업들의 경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에 7억원을 특별 출연하며, 기술보증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총 500억원 규모의 협약 보증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술보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수입협회가 추천하는 정회원사로, 하나은행은 이들 중소·중견 기업에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약 보증을 통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보증료 0.7%포인트(p) 최대 2년간 지원 ▲대출금리 우대 ▲환율·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금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금융지원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